

GS칼텍스, Alkylation 공장 완공

1400억원 투자 여수공장에 ... 친환경 휘발유첨가제로 옥탄가 97 이상

GS칼텍스(대표 허동수)는 1400억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에 옥탄가 97 이상의 친환경 휘발유 첨가제인 알킬레이션(Alkylation) 생산라인을 완공했다고 11월17일 발표했다.

Alkylation 공장은 부탄(Butane)을 원료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황 함유량 30ppm 이하, 옥탄가 97 이상의 알킬레이트를 생산한다.

알킬레이트는 최근 수질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옥탄 휘발유첨가제 MTBE(Methyl tert-Butyl Ether)를 대체하는 첨가제로 자체만으로도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다.

2년에 걸쳐 완공된 알킬레이션 공장은 하루에 1만배럴의 알킬레이트를 생산하고, 공정 촉매로 사용하는 100톤의 황산을 재생한다.

GS칼텍스는 “휘발유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알킬레이션 공장의 건설은 필수이며, 현재 배럴당 7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알킬레이트 가격을 고려하면 공장 완공으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18>